조선대병원, 최첨단 AI병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미래형 의료장비·시설 도입, 2028년 새 병원 건립 준비 박차
'환자 중심 진료 구현' 핵심 목표…세계 최고 의료서비스 제공

조선대병원이 미래형 의료 장비와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병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경종 병원장은 올초 취임 1주년을 맞아 미래 의료를 선도할 스마트병원 구축의 포부를 밝힌데 이어, 개원 52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에서는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스마트 의료를 바탕으로 세계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새병원 건립과 최첨단 스마트병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는 김경종 조선대병원장을 만났다.

-추진중인 새병원은 현재 어디까지 왔나.

▲조선대병원은 1971년 개원한 이후, 2007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증축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지만 공간 부족 등으로 최첨단 의료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특히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불편과 의료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병원 건립이 절실했다.

기존 의료시설과 연계성, 지하철을 통한 접근성, 비용절감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에 장례식장 부지를 새병원 부지로 최종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

새병원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지상 16층·지하 4층의 700병상 규모로 짓게 되며, 본관 의료시설을 이전하고 감염병전문병원까지 조성되면 병상도 현재 849병상에서 총 1000병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선대병원이 표방하는 최첨단 스마트병원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최첨단 스마트병원의 핵심목표는 '환자중심 진료 구현'이기에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스마트병원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새병원 건립에 앞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의료 장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 활동으로 내·외부 연결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 플랫폼 설계, 위치기반서비스(RTLS) 활용, 데이터/영상처리 네트워크 고도화, 환자 관련 및 물류 이동 관리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 AI와 IOT를 활용한 업무 최적화 등의 시스템 설치 및 구축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첨단 스마트병원 구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선 새병원을 개원하고 스마트 수술실과 병동 시스템, AI기반 스마트 모바일 플랫폼 등 스마트병원의 의료환경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 대형병원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새병원 준공에 대비해 최첨단 의료 장비 및 시설을 도입하고, 디지털 의료환경으로의 전환을 실현중이다. 이를 위해 최신형 의료장비인 4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 Xi, 3세대 듀얼소스 CT '소마톰포스'와 마그네톰 비다 3T MRI 및 방사선암치료기 '헬시온 3.1'을 도입해 가동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꿈의 암 치료기'라는 별명을 가진 방사선암치료기 트루빔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의료환경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모니터코퍼레이션, 지멘스 헬시니어스 등과 '디지털 헬스케어 신기술'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 자동영상분석 시스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 AI 솔루션을 도입해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김경종 조선대병원장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 조선대병원 최첨단 스마트병원 조감도.

이밖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광주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통해 새병원 신축 전에도 현 병원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 AI 도입을 통해 스마트 의료를 최대한 구현해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실제 공간과 닮은 디지털 트윈으로 제작해 '메타버스 조선대학교병원'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메타버스 조선대학교병원 플랫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의료서비스, 각종 컨퍼런스, 미팅, 조선대병원 역사관·미술관 등의 콘텐츠를 담고 있으며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스마트폰으로 이용이 가능한 알림톡 방식인 '카카오알림톡'을 통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안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병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K-Health 국민의료 AI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사업의 참여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조선대병원은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4월부터 2차년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시 전역 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에게 인공지능(AI)과 융합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AI기반 병원 응급의료 통합체계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조선대병원에 보내주고 계신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병원이 건립되는 날까지 지역민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최신형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의료 질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반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더욱 스마트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50여 년간 보내주신 지역민들의 사랑에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로 보답하겠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 노인 빈혈 위험↑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노인은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빈혈은 피로, 호흡곤란, 현기증, 부정맥, 두통, 흉통, 창백하거나 노란 피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호주 모나쉬(Monash) 대학 의대 혈액학 교수 조 맥퀼튼 박사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1만 9114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진행된 임상시험(ASPirin in Reducing Event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뉴스(HealthDay News)가 최근 보도했다.

이들은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 한 그룹(실험군)엔 매일 저용량(100mg) 아스피린, 다른 그룹(대조군)엔 위약(placebo)이 투여됐다.

실험군은 5년 안에 빈혈이 나타날 위험이 대조군보다 24%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험군은 또 산소를 온몸에 실어 나르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혈색소) 수치가 대조군보다 줄었다. 실험군은 이와 함께 혈중 철분도 대조군보다 적었다. 우리 몸은 철분을 이용해 헤모글로빈을 만든다.

따라서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 노인은 피로, 호흡곤란 같은 빈혈 증세가 나타나는지 주시하면서 주기적으로 헤모글로빈과 혈중 철 수치를 모니터하도록 연구팀은 권고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혈액 응고 능력을 방해해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막아줄 수 있지만 위장관과 다른 신체조직으로부터의 혈액 누출을 막는 작은 혈액 응고들을 억제하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통합의학으로 하나되다"…한독생의학학회, 암 환우 희망토크 콘서트

전통의학·면역학·자연의학 통합

한독생의학학회(회장 김승조)와 비오신코리아(대표 강종옥)는 최근 화순 비오메드 요양병원에서 '2023 암 환우 희망토크 콘서트-통합의학으로 하나된 사람들'을 개최했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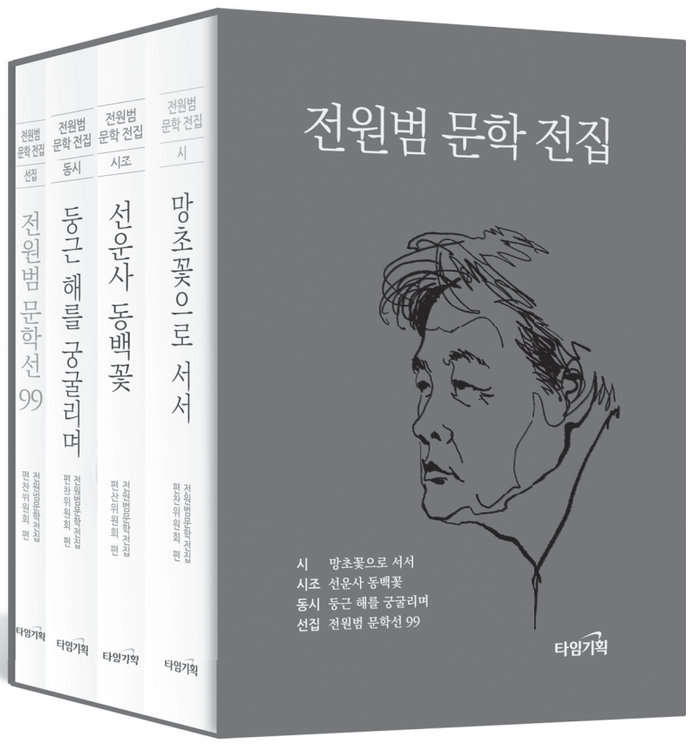
독일 통합의학의 선구자이자 종양학자인 닥터 하거(Hager) 박사와 한독생의학학회를 창립한 강종옥 대표는 이날 장헌일 암환우희망재단 이사장과 함께 지난 25년간 통합적인 암 치료 컨셉인 임보크(IMVOKE) 시스템을 통해 암 환우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온 과정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통합 암 치료는 전통의학과 면역학, 자연의학을 통합한 것이다. 또한 상경원 인터메드요양병원 김승조 박사는 '통합적인 암 치료 답'이라는 주제로 암 치료의 주체는 환자 자신이기에 암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해 집중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닥터 하거 기념병원인 비오메드 요양병원 박성주 진료원장은 통합의학적 암 치료를 통해 희망을 얻은 암 환우 다섯 명과 함께 출연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독일 비오신의 토마스 슈티펠 박사, 대만국립대학 종신교수 첸시우난 박사 등을 비롯한 해외 암 재활 전문가와 가유회·라일락·소명회·백일홍 등 전국 유방암 환우 자조모임 회장단 등이 참여해 암 환우와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채희종 기자 cae@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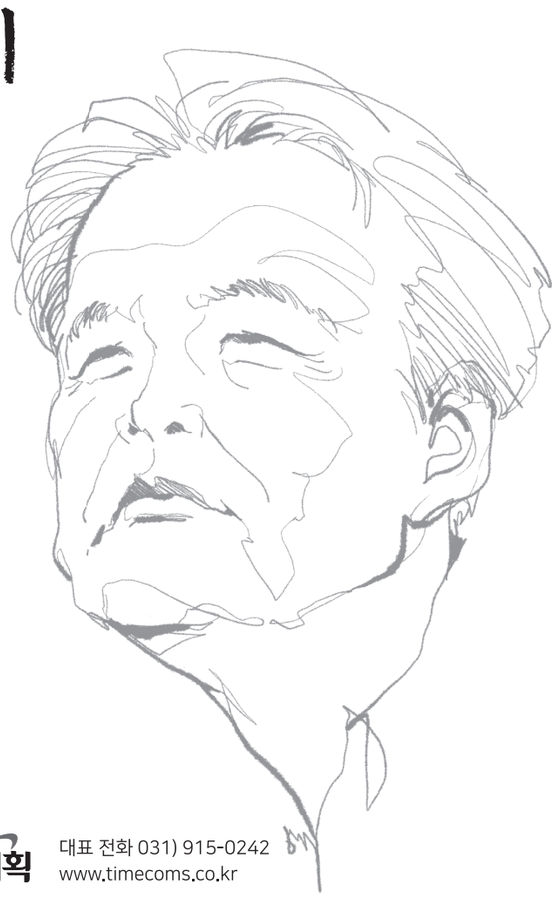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염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